



홍콩은 어떻게 국제 미식 도시의 파워를 유지하고 있는가? 홍콩에서 매달 와인 경매가 열리고 있다. 규모·주제에 상관없이 모든 와인 경매에 대한 애호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10월, 크리스티(Christie's) 경매회사의 아시아 지역 와인 책임자(Head of Wine) 사이먼 탐(Simon Tam)을 만나 홍콩이 세계 와인 플랫폼이 된 이유와 시너지 효과에 대해 물었다.

글 이소영 프리랜서 기자

“홍콩은 아시아의 와인 플랫폼”
‘크리스티’ 와인 스페셜리스트
사이먼 탐

Q 홍콩 주류 시장의 근황은 어떻습니까.

A 2008년 20도 미만 저도수 주류 세금이 없어진 후 와인&다인 축제 등이 생겼습니다. 홍콩은 국제도시로서 세계적 컨벤션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와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지요. 크리스티와 같은 경매회사는 서구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홍콩에 세금이 없어지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홍콩 크리스티는 뉴욕·런던과 같은 오래된 옥션 회사를 넘어 세계 1위 와인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어요. 세금이 없어지고 불과 8년 만에 이런 성과여서 더욱 놀랍습니다. 2013년 11월 홍콩 와인 경매에 출품된 도메인 드 라 로마네 콩티(Domaine de la Romanee-Conti, Romanee-Conti 1978년) (12병 세트)는 수수료 포함 367만5천홍콩달러(약 5억3천195만 원)에 낙찰돼 와인 경매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이들이 경매에 참여하는지요.

A 크리스티 홍콩 와인 경매는 홍콩과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인이 홍콩 와인 경매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인 와인 마니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경매할 때 각국 통화로 액수가 표기되는데 홍콩 달러, 중국 위안화, 미국 달러, 유로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화 금액이 표시될 정도로 한국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유럽 고객은 와인을 사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 고객은 대부분 좋은 와인을 구입하자마자 소중한 사람들과 마시고 싶어하기 때문에 보람을 느낍니다.

Q 홍콩에는 크리스티뿐 아니라 모두 6개의 와인 경매회사가 있습니다. 크리스티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고객이 경매에서 구입한 와인의 맛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100% 변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규정에 따라 변상이 이루어집니다. 와인 경매는 미술품이나 디자인 작품처럼 프리뷰에서 미리 직접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에서는 최적의 와인 보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현지 와인 생산자에게서 직접 와인을 가지고 오는 방법도 선호합니다. 크리스티 스페셜 경매를 위해 프랑스 뭉지니(Musigny) 와인 컬렉션을 가지고 왔을 때도 마니아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지 와이너리에서 직접 빈티지 와인을 가지고 오는 것은 컬렉터나 참고를 거치는 것보다 신뢰를 받습니다.



볼랭저 브뤼(Bollinger Brut, R.D.) 1961년 빈티지는 와인 경매에서 인기있는 샴페인 중 하나다.

Q 크리스티의 와인 심사가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

A 경매를 위해 의뢰가 들어온 와인을 한 병씩 확인하는 것도 내 역할입니다. 경매회사별 빈티지 와인의 외관상 확인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크리스티 역시 고유의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샤로 라피트 로칠드 1982년이라면 시간이 지났음을 감안해 와인병에 어느 정도의 양이 남아 있어야 하는지부터 검토해요. 코르크 품질과 와인 보관 상태와 같은 작은 차이가 맛을 변질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관리된 와인과 습기 찬 창고에 있었던 와인 레이블도 완전히 다르지요. 사람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한 사람이 보기 좋은 것처럼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를 의뢰받는 와인 중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와인이 더 많을 정도입니다.

Q 와인을 즐기기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컬렉션하는 이들도 있나요.

A 와인도 미술작품과 마찬가지로 투자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 브랜드들의 특정 빈티지 샴페인이 시장에서 강세입니다. 일례로 2010년 경매에서 800홍콩달러에 유찰된 1996년 빈티지 샴페인이 최근 3천홍콩달러에 팔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와인 컬렉터스 컬렉션'(Wine Collectors Collection)은 수집가의 와인을 특별 경매에 부치는 것입니다. 수집가들이 좋아하는 와인들을 많이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즐겁게 되파는 경우도 있고, 부르고뉴 와인 수집가가 보르도에 휴가가 생겨서 와인을 경매에 다시 내놓는 일도 종종 있지요. 열혈 수집가들의 와인이 어느 순간 참고에 꼭 차면 경매에 내놓기도 하고요.

Q 와인 스페셜리스트로서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A 각국의 흥미로운 와인을 소개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좋은 와인을 항상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기쁩니다. 요즘 경매에서 수집가들은 가격보다 보존 상태에 관심을 가집니다. 구하기 어려운 와인이라 엄청난 고가일지라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1 과거에는 프랑스 와인 위주로 거래되었지만 최근에는 이탈리아, 독일, 남아공 와인도 인기다. 2 위스키는 면세 되지 않지만 와인의 인기와 더불어 주목 받고 있다. 아직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

이력이 정확한 와인이라면 큰 관심을 받습니다. 따라서 와인 컬렉션은 미술 작품처럼 집에 보관하기보다 전문적으로 와인을 관리하는 곳에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Q 주세 폐지 이외에 홍콩이 세계 와인 시장의 중심이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A 주세가 없어지면서 홍콩이 세계 와인의 중심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홍콩 와인 경매가 열리는 시간은 유럽은 아침, 미국은 저녁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와인 애호가들이 출퇴근 전후에 적극적으로 온라인 와인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요. 홍콩은 와인 천국답게, 흥미로운 공간도 많습니다. '에이트 에스테이트 와이너리'(The 8th Estate Winery)에서는 이탈리아에서 냉동 포도를 수입해와 직접 와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크라운 와인 셀러'(Crown Wine Cellar)는 군수품 병커를 개조한 화원제 와인 창고인데, 크리스티 역시 이곳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홍콩이 아시아 미식의 중심지라는 것도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Q 홍콩에서 와인을 즐기는 노하우를 소개해주세요.

A 홍콩은 미술랑 스타를 받은 훌륭한 레스토랑뿐 아니라 저렴한 식당도 많았습니다. 현지인에게 맛있는 식당을 추천받은 후 와인을 직접 사가지고 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요리에 따라 매치할 수 있도록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각 1병을 사가지고 가서 식사한다면 최고의 만찬이 될 것입니다. 홍콩은 외부에서 사 온 와인엔 부과되는 코르크 차지가 저렴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와인 잔이 없는 식당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하는 자리라면 종이컵에 와인을 먹어도 맛있을 것입니다. 홍콩 현지에서 요즘 내가 추천하는 가성비 좋은 와인은 뉴질랜드 와인이며, 마카오 식당에 간다면 포르투갈 와인을 맛보는 것도 좋습니다. 홍콩에는 가성비



2



좋은 와인 샐도 많습니다. 퀸즈로드와 퍼시픽 빌딩에 위치한 와인 샐을 방문해보세요.

나는 최근 아이폰 앱 '플레이버 컬러스'(Flavour Colours)를 론칭했어요. 세계 최초 중국 음식과 와인 페어링 앱(App)이지요. 스페셜리스트로서 세계 70개의 와인과 중국 음식의 매치를 추천하고 있으니 와인 고를 때 참조하세요.

Q 와인 경매의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까.

A 홍콩은 세계의 와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계속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포도 재배와 와인 제조에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내추럴 와인이 인기인데요. 하지만 보관 방법이 까다로워서 경매에 출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추럴 와인도 경매에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10년 전에는 보르도 와인이 부르고뉴 와인보다 훨씬 인기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와인이 경매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부르고뉴 와인과 남아공 와인이 경매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아직 홍콩에서 열리는 크리스티 경매에선 위스키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술인 마오타이(MAOTAI)는 상하이에서 경매가 진행됐어요.

Q 와인 스페셜리스트로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진행했던 모든 경매가 각별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경매를 진행해왔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경매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매 당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하루를 준비해요. 언제나 단상에 오르기 직전에는 기분 좋은 긴장과 떨림이 있습니다. 와인 경매는 매번 다른 분위기와 주제들로 진행되는 데, 예를 들어 10년 전 크리

스티 경매에서는 대부분 보르도 지역 와인을 다루었습니다. 현재는 경매를 통해 프랑스를 포함한 남아공, 포르투갈, 독일, 이탈리아, 캘리포니아, 호주 등에서 생산된 다채로운 와인들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이 기분 좋아요. 호주에서 와인을 공부하고 1993년에 홍콩에 처음 왔을 때는 세금이 높아 와인이 비쌌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마트에서도 다른 나라 와인은 찾아보기 어려웠지요.

Q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는 어떻게 생성됩니까.

A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와인을 나누어 마시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오갈 수 있어요. 크리스티에서는 VIP를 위한 와인 디너도 자주 갖는데요, 이번 달(10월)에는 독일 와인과 남아공 와인 디너가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 와인 디너에서는 좋은 프랑스 와인을 한 병 섞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예정이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공 와인이 프랑스 와인엔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티는 홍콩 경매 최초로 남아공 와인 경매를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Q 초보 와인 애호가에게 경매에 참여하는 노하우나 방법이 있습니까.

A 중요한 것은 자신의 취향을 믿는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와인을 마셔보고 취향에 맞는 와인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와인과 같은 산지에서 생산된 다른 와인, 다른 종류의 포도로 생산된 와인 등 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해 이해와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 리뷰를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와인에 대한 감성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와인일지라도 리뷰와 다른 느낌과 풍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

홍콩은 면세로 인해 쇼핑과 미식 도시로서의 위엄을 공고히 하게 됐다. 200여년 전 해상 무역을 위해 향료와 향나무를 실어 나르던 항구에는 이제 와인과 미술작품이 오가고 있는 것. 그리고 보니 미술품과 와인은 둘 다 수집가의 열정과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아시아 와인 시장은 여전히 성장 중이고, 그 중심에 홍콩이 있다. 2019년 와인 시장은 올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다양한 와인 스타일과 빈티지가 경매에 선보이고 있으니, 새로운 신기록 탄생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